

# 장수 가야의 봉화불 밝힌다

동촌리 고분군 사적지정 1년  
철기문화 꽃피운 '반파가야'  
위상 드높이기 위해  
군, 31일 봉화대 점화행사



장수 봉화대. (사진=장수군청 제공)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인 '동촌리 고분군(제552호)' 사적지정 1주년을 기념해 이날 31일 가야봉화대 점화행사를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촌리 고분군의 우수한 역사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파가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가야봉화대 점화식이 거행된다.  
가야봉화대 점화식은 ICT(정보통신기술)의 원조인 봉화를 통해 당시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인 '철기문화'를 꽃피운 '반파가야'를 재조명한다.  
부대행사로 장수가야 지킴이들이 주최하는 제3회 장수가야 문화제, 논개관소리 전국 경연대회(본선), 각종 체육대회, 생

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동촌리 고분군은 그동안 백제로 인식된 장수에 가야문화의 확인과 백두대간을 넘어 유일하게 가야문화가 자리한 것으로 그 역사성이 확인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특히 2016년 가야문화권 최초로 말발굽 보호에 쓰던 '편자'가 출토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편자는 기술력이 집약된 철제품으로 평가

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군민들부터 알고 전북지역 가야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격 취소된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파랑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도 장수가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군산대 인문학창고 '정담52' 정상 운영

20일, 전북대 황갑연 교수의 '삼강의 본질과 반성'  
내달, 광병선 군산대 총장 '4차산업혁명과 법' 강연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이 운영해 온 "인문학창고 정담(精談)52" 문화공연 및 강연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관광객 및 군산시민의 힐링과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문학창고 정담(精談)52"는 군산세관 내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음악, 문화, 예술, 철학, 과학, 역사 등의 주제로 정담계 담소(정담)를 나누는 공간이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 및 군산시민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과 7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다가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재식(테너), 문용재(바리톤), 이윤지(소프라노), 김민재(피아노)가 '창작오페라 캐시미어'를 공연했고, 15일에는 코로나 핵심 트렌드인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가, 22일에는 군산에서 사용되는 사투리를 재미있게 풀어낸 '군산의 언어·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군산대 박시균 교수가 강연했다.  
오는 29일에는 '삼강의 본질과 반성'을 주제

로 한 전북대학교 철학과 황갑연 교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인문학창고 정담(精談)52"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는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유튜브에 '인문산학협력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또한 11월 강연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5일은 퍼포밍아트 더 몸(Momm)의 공연 '뽀족한 지렁이의 발톱'이, 12일은 신석호 미술작가의 '미술/군산/여기'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19일에는 '4차산업혁명과 법'을 주제로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군산대 법학과 교수)이 강연한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063-469-429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30일까지 익산문화원  
야외무대에서 '문화원의 날'

제4회 익산문화원의 날 행사가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익산문화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객을 최소화하고 익산문화원 30개 문화프로그램 중 취타대 등 25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들의 공연 발표로 진행된다.  
특히 깊어가는 가을의 향취 속에 펼쳐지는 익산문화원의 날은 문화원 주변에 국화향기가 가득한 행복정원이 설치되어 관광객들과의 자연스런 교감 속에 문화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홍보영상 제작도 예정되어 있어 익산문화원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문화원 회원들이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문화원의 날은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에 맞추어 문화 가족의 화합 및 발표회를 통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문화 감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2017년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돌이 아닌 하나' 태극문양에 담아

군산근대미술관, 故박종대 조각가 특별전  
'영원한 울동의 근원' 내년 2월 14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분관인 근대미술관(구.18은행)에서 오는 2021년 2월 14일까지 故박종대 조각가 특별전 '영원한 울동의 근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故박종대 조각가(1941~2011)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예술가로 활동함과 동시에 군산대학교에서 교육자로서 문화예술인의 양성에도 힘써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4년 故박종대 조각가의 작품을 군산시에 기증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군산시에 소장하게 된 작품 109점 가운데 석조, 브론즈 등 24점이 공개됐다.  
전시 작품들에는 '돌이 아닌 하나'의 의미를 '태극의 조형미'에 부여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표현됐으며, 국내산 화강암과 청동재 이외에도 故박종대 조각가가 중국, 이탈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산지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질감 재료들로 작업한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故박종대 조각가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귀한 작품을 군산시에 기증하여 주신 유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에서는 연 4회 전북도립미술관 등 타 미술관 연계 기획전과 군산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며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군산시민들에게 우수한 미술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지역·예술가 등이

## 함께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북문화관광재단,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서 31일 콘서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어린이들의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2020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서트'는 지역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교사와 학부모가, 예술가와 기획자가, 아이들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다.  
이 콘서트는 오는 31일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누에서 오후 1시부터 1부 전문가 특강과 2부 놀이 워크숍을 운영한다.  
1부 전문가 특강은 교·강사, 학부모,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김태은 교육부 전문위원의 '삶을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인다. 그간의 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적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교육, 마을과 학교를 잇는 예술활동,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삶의 예술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  
2부 놀이 워크숍은 복합문화지구 누에

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고유의 창작 활동을 예술 놀이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대라 작가(한국화가)의 '어린이 색동 퍼포먼스'는 전통적인 색동천을 이용해 즉흥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예술 놀이, 장희진 작가(서양화) '무지개 몸짓 드로잉'의 몸을 이용한 드로잉 놀이, 정진용 작가(한국화) '알록달록 탐쌍기'의 종이 색을 물들여 종이탑을 쌓는 놀이를 함께한다.  
재단은 도내 어린이, 학부모, 교·강사,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복합문화지구 누에(nue.or.kr)에서 선착순 총 60명(특강 30명, 워크숍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사는 "어린이는 잠재적 예술가다"며, "우수한 역량의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들의 예술적 성장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예술교육팀(230-745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